

일본의 효고현 공업기술센터

옥수수섬유 「락트론」 개발

일본 효고현(兵庫縣)의 현립(縣立) 공업기술센터 섬유공업지도소는 가네보 섬유의 협력을 받아, 옥수수에서 추출한 폴리 유산(乳酸)섬유 「락트론」을 개발하였는데, 이 섬유는 비석유계(非石油系)로서 자연환경에 유익한 비공해형 섬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. 특히 인간의 체내에도 존재하는 유산을 원료로 하고 있어 이 섬유의 피부자극성 시험이나 착용시험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생분해성(生分解性) 섬유이다.

「락트론」은 면과의 혼방사도 시방에 성공하였으며, 선염직물의 시험생산도 성공하고 있다.